

정깊게 불러주신 이름

주체103(2014)년 11월 어느날 한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곳 예술소조원들이 준비한 소박한 공연도 보아주시었다.

그이께서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하였다고 하시며 종목마다에 당정책이 맥박치고 공장애가 차넘치며 사상성, 예술성은 물론 당의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는 길에서 기수, 돌격대가 되려는 공장로동계급의 혁명적인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 공연이라는데 대하여 기쁘신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마디마디에 따뜻한 정이 차넘치는 말씀이었다.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현대화된 공장을 돌아본것도 기쁘지만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한 공장로동계급의 사상정신적풍모를 보게 된것이 더욱 기쁘다고, 당과 운명을 함께 하려는 그들의 마음을 읽으면서 배심이 든든해졌으며 큰 힘을 얻었다고, 우리의 미더운 로동계급이 있기에 그 어떤 어려운 난관도 웃으며 헤쳐나갈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새겨안았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미더운 로동계급!

정깊게 불러주시는 이 말속에는 담겨져있었다. 일편단심 당만을 믿고 따르려는 순결한 충성심을 안고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며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온 영웅적인 우리 로동계급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절대의 믿음이.

그 무한한 사랑과 믿음을 원동력으로 하고있기에 우리 로동계급은 주체혁명의 선봉부대, 나라의 맡아들답게 조국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는것이다.